



무등산 첫 눈...눈꽃 활짝

광주 무등산에 첫눈이 내린 14일 등산객들이 하얗게 물든 서석대 아래서 나무에 핀 눈꽃을 촬영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15일 광주·전남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0~7도로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7면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원전 수심기 밀집 황해권 불안

中, 동해 연안에 속속 건설...전남에 방사선안전과학원 설립 필요

중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면 사흘 뒤 한반도 전역이 오염된다. 한반도는 바람 덕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피해에서는 벗어났지만 최근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에서 사고가 터지면 중국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관련기사 3·6면> 최근 영광 원전의 잇단 가동 중단으로 방사능에 대한 우려와 근본적인 방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중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동북아의 화약고’ 황해 일대의 장기적인 안전을 위해 전남지역에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전남도는 14일 “최근 박준영 전남지사가 국회 예결위원들을 찾아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 설립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방사선안전과학원 등을 갖춘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은 국가 차원에서 방사선 안전 분야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곳이다. 설립에는 총 57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황해권에는 영광원전 6기 외에 중국이 원자력발전소 16기를 가동하고 있고 7기를 추가 공사 중이어서 전남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원전의 대부분은 중국 동부 연안에 집중돼 있다. 원전이 대부분 바닷물을 냉각수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와 인접한 저장성의 삼면(三門)과 산둥(山東)성의 하이양(海陽) 등에 추가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의원이 공개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동아시아 장거리 대기확산 모델의 연구개발 선행연구’에 따르면 3월이면 중국 원전 방사능 피해가 한반도를 덮친다. 중국 중서부에서 방사성 요오드131이 12시간 동안 방출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기확산 모델을 적용한 실험 결과, 요오드131은 편서풍을 타고 동서로 넓게 퍼지면서 한반도로 근접해 3일만에 한반도 서

해안에 상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광원전에서 국내 원전 발전량의 28.5%를 감당하고 있어 이 지역에 원전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비상진료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 설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시민단체 ‘영광원전 국정조사’ 요구

잇단 비리와 사고로 원전 불안감이 확산 되면서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영광원전 안전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원전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광주·전남 진보연대와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14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광원전 1~6호기 즉각 가동 중지하고 국제적 수준의 안전점검 ▲위조부품 비리, 3호기 균열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 ▲지역주민과 지자체 및 의회가 참여하는 민간합동조사단으로 개편 등을 주문했다. 한편 15일 오전 영광원전 앞에서는 ‘영광원전 범군민대책추진위원회’ 주최로 3000여명이 참석하는 원전 가동 중지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전남대 교수사회 진흙탕 싸움

총장 재선거 끝났지만 1·2위 후보간 논문 표절 맞제소

전남대학교의 마지막 직선제 총장 선거가 불법선거 운동으로 인해 재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협화음에 휩싸이면서 대학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총장 재선거에서 각각 총장 후보 1, 2순위에 오른 지병문(59·정치외교학과)교수와 윤택림(54·의학과)교수에 대해 최근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병문 후보에 대한 논문 표절 제소 직후, 곧바로 윤택림 후보에 대한 맞제소가 이뤄지면서 논문 표절 시비를 가리는 전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애초 재선거(10월17일)가 끝난 직후 지난달 20일을 전후해 김보씨 명의로 지병문 후보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 문건이 대학 교수와 언론사 등에

우편물 또는 이메일로 전달됐다.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A교수는 지난 2일 지 후보의 논문 5건에 대해 표절 의혹을 밝혀달라며 위원회에 제소했다. A교수는 ▲외국논문 표절 1건·지방정부에 대한 시민 접촉 모델: 광주경험의 경험’ ▲자기 논문 표절(중복게재) 4건-정부개혁과 지방자치의 민주화,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향, 지방정부 개혁의 이론적 배경과 방향,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자체의 문제 등의 논문 일부 또는 상당 부분에 표절 의혹이 엮인다고 주장했다. 지 후보에 대한 제소가 이뤄진 지 수일 후, 이번에는 B교수가 윤택림 후보의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같은 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제19대 총장 선출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B교수는 윤 후보의 ‘최소점수 인공과관절 치환술

법’, ‘Accuracy of Navigation’ 등의 논문에서 표절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학의 한 원로교수는 “국립대 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도덕률은 물론 어떠한 의혹이나 소문, 비난에 대해서도 성실한 자세로 해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리”라면서 “하지만 현재 총장 후보는 구성원들에게 성실한 해명을 하기 보다는 공격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이와 함께 전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두 후보의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주 중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지병문, 윤택림 후보는 자신들의 논문이 학문 윤리상, 학회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安측 “단일화 협상 당분간 중단”

“文 후보측 정권교체 의지 있는지 의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14일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과의 후보단일화 방식(룰) 협의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혀, 후보 단일화 협상이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안 후보 측의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중로 광명캠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른바 ‘안 후보 양보론’은 터무니없다. 문 후보 측에 최대한 빠른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지금까지 성실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따라서 당분간 단일화 협의는 중단된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의 단일화 방식 협의 중단 선언은 지난 12일 양측 각 3명의 인사로 구성된 ‘단일화 실무단’이 상견례를 갖고 단일화 방식에 대해 첫 협의를 가진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유 대변인은 “문 후보 측의 결의 말과 속의 행동이 다르다. 유불리를 따져 안 후보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 말고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 대변인은 “문 후보 측의

가시적 조치가 없으면 언제든지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경제복지 및 통일외교안보 정책협의는 예정대로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 측의 단일화 실무단은 이날 캠프 핵심 인사들과 만나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논의해 이런 결론을 내렸고, 안 후보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부산을 방문중이던 민주당 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만약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i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원서접수: 11. 12(월)~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원서접수: 11. 12(월)~30(금)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포스코건설 중남미에서 길을 찾다

12개 프로젝트 10조원 규모

모두들 중동만 찾을 때, 포스코건설은 남다른 시각으로 중남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94억불(한화 10조원)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중남미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업계 최우수 신용등급과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달성한 2011년 국내 종합 건설사 국내외수주 1위. 포스코건설은 앞으로도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posco
포스코건설